

고흥여성지원센터 개관 1년

소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여성·가족·보육 등 6000여명 찾아...군민 복합문화공간 역할 특출



고흥군이 고흥여성지원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공사비 26억원(군비)을 투입하여 26일 개관한 고흥여성지원센터는 실습실, 취업상담 사무실, 육아, 취창업 사무실 등 면적 1,016㎡의 지상 3층 건물로 여성·가족·보육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군민 복합문화 공간이다.

고흥군이 고흥여성지원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공사비 26억원(군비)을 투입하여 26일 개관한 고흥여성지원센터는 실습실, 취업상담 사무실, 육아, 취창업 사무실 등 면적 1,016㎡의 지상 3층 건물로 여성·가족·보육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군민 복합문화 공간이다.

고흥군이 고흥여성지원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공사비 26억원(군비)을 투입하여 26일 개관한 고흥여성지원센터는 실습실, 취업상담 사무실, 육아, 취창업 사무실 등 면적 1,016㎡의 지상 3층 건물로 여성·가족·보육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군민 복합문화 공간이다.

장난감 대여·나눔터 운영(196명, 390점 대여) 등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소통·배려의 문화공간 행복나눔가게 상시 운영(장터 운영 2회, 수익금 148만 5천원, 이웃돕기 기탁)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운영 등 여성·가족·보육 등 군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내실 운영은 물론, 여성의 행복할 미래를 위해 고흥여성지원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용 문의사항은 고흥여성지원센터(061-830-5344), 공동육아나눔터·조순이함께하는놀이방(061-830-6879), 고흥새일센터(061-830-5350, 5679)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웅천 고층민원 현장서 해법 모색

"주민 불편 깊이 공감...피해 최소화 방안 함께 고민"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웅천동 롯데 캐슬마리나 건축 현장에서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웅천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을 위로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여수시 웅천동 롯데

캐슬마리나 건축 현장 방문해 주민 대표와 시의원 등 50여 명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권 시장에 웅천 포레나 아파트 전체 방음벽 설치와 공원 부지를 이용한 도로확장, 진동측정기 운영 등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주민 불편을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한다"면서 "주민 피해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에 소음 현황판 3개와 풍속 현황판 1개를 설치해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포레나아파트 신축 시 방음

벽 대신 수목 조성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며 "관련 규정과 사업 내용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공원부지 도로확장은 "주민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롯데건설 측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면 여수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진동측정기 운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기를 구입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권 시장은 "주민대표, 시공사 등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고층·다수민원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면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순천형 '란츠게마인데' ...제1회 덕연동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주민투표 결정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사전투표 추진... 동민 3% 참여 목표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항기)는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21년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2020년 제1회 덕연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란츠게마인데'는 1년에 한 번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 지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다.

순천형 란츠게마인데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전투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덕연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총회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덕연동 주민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 새롭게 정비한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5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왔다.

제안·발굴된 사업들은 해당 마을주민의 공유와 숙의과정을 거쳐 시 소관 부서의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주민투표 안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민투표 안건은 ▲기적의도서관길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소규모시설사업 8건, ▲마을활동가 발굴 콘테스트 등 역량강화사업 13건, ▲연가은 소통방통 우리동네 마을장터 등 마을계획 실행사업 2건 등 총 23건이다.

안건에 대한 투표는 8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 사전투표와 8월 8일 소규모 현장투표로 진행되며, 덕연동 주민의 3%에 해당하는 1,35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다.

사전투표는 덕연동 주요거점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별도로 개설된 네이버폼(<http://naver.me/x3OwPhJM>)을 통해 각 사업별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한 후 1인당 3표씩 투표하는 방식이다.

덕연동에 주소를 둔 거주민이나 덕연동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에 다니고 있는 덕연동 생활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8일, 연향제1근린공원(동성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투표를 겸한 소규모 현장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항기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을 민주주의 1번지 덕연동의 자부심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4만 5천여 덕연동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만 노다지 금일 된 갯잎

순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출하농민들 함박 웃음



수천 년 이어온 광활한 갯벌과 갈대숲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최초 람사르 습지 순천만을 지척에 둔 도사동 강동마을은 농민기가 지난 요즘이 더 분주하다.

최근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이 파머스마켓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면서 이곳에 갯잎이 고추, 열무 등 각종 소량농산물 출하를 위해 부지깥이 손이라도 빌려 쓰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그 이유다.

대다수 80세 이상 고령임에도

일평생 농사꾼의 노련함으로 출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척척 손질해 나간다.

이 마을은 순천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후 5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로컬푸드로 출하하면서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됐다.

또한, 소포장 해서 마을 어귀에 모아두기만 하면 농협에서 수집해 가기 때문에 직접 내다 팔아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었다.

마을 대표인 정영남(남.64)씨는 "예전 같으면 소량 농산물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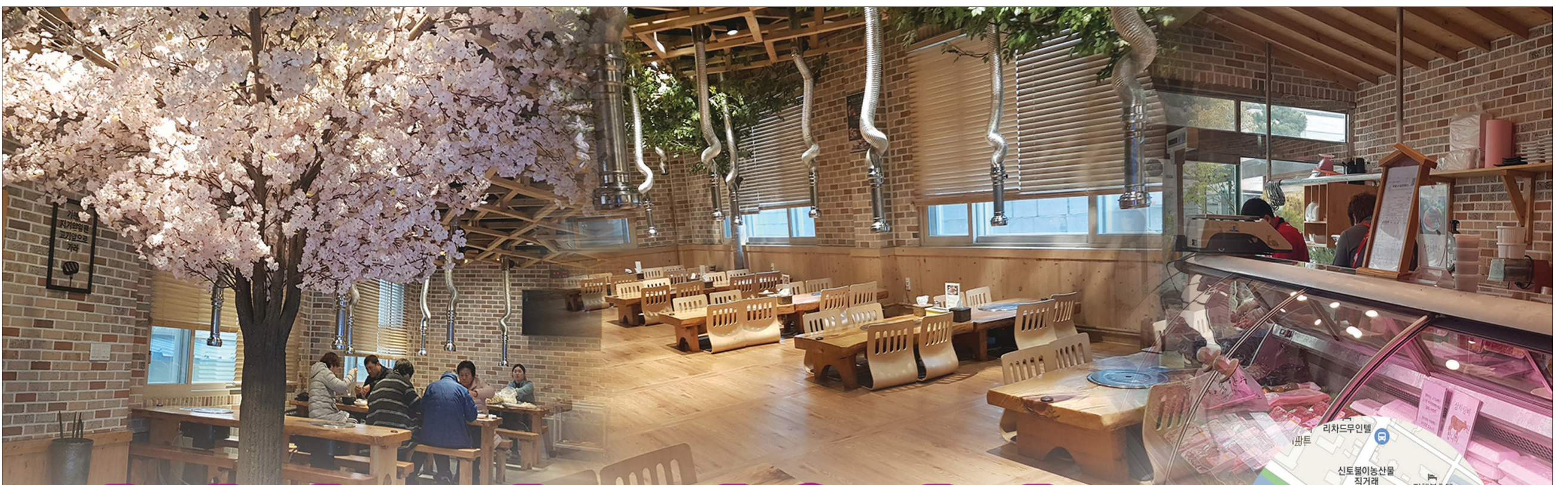
에 내다 팔기도 어려워 대부분 집에서 소비하거나 버렸는데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 판매를 해주니 정말 편리하고 특히, 시장에 파는 것보다 값이 훨씬 좋아 솔솔 한 재미를 보고 있다"며 귀에 걸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실제 갯잎 한 묶음(10장) 도매 출하가격은 200원 정도이나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다단계적 유통문제에 대한 방증이다.

순천농협은 강동마을에 '로컬푸드 산지직하장' 1호점을 설치했다. 이곳은 출하된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가기 전 안전하고 심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출하농민들의 편리를 더해주고 있다.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은 "생산자는 제 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제 값에 못 사는 것이 농산물 유통 시장의 현실이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와 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로컬푸드가 정답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